

# 양자 결연한 아이의 비자·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양자 결연, 일본에 사는 외국인 분으로부터 모국에서 아이를 불러오고 싶다는 또는 양자를 삼고 싶다는 상담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는 아니고 조카나 질녀, 친구의 아이를 양자로 얻고 싶다고 하는 일도 자주 있군요. 이번은 그 양자 결연과 아이의 비자의 관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당신이 아이의 진짜 부모가 아니면 아이를 불러와 양자 결연 수속을 한다는 것은 꽤 복잡합니다**

현재 당신이 일본인과 결혼했다면 아이를 불러온 후 그 일본인 배우자와 양자 결연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이 때 불러온 아이에게는 「정주자」의 재류 자격이 나옵니다(일본인 배우자가 양자 결연 하지 않아도 혹은 당신이 현재 결혼하고 있지 않아도 진짜 부모인 당신의 「전 배우자와의 아이」로 「정주자」의 재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이의 진짜 부모가 아닌 경우 아이를 불러와 양자 결연 수속을 한다면 그것은 꽤 복잡해 집니다. 일본에서는 양친 혹은 양자 중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 양자 결연에 대해서는 양친의 본국 법률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양친이 되는 부부 2 명의 국적이 다른 경우 양자의 본국 법률에 의해 진짜 부모로부터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률도 존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른 나라간의 법률의 밸런스를 잡으면서 수속을 진행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속이 복잡하게 됩니다.

**「정주」의 재류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이가 17~18세 정도까지입니다**

외국적인 분과의 상담중에 신경쓰이는 것은 자신의 아이를 일본에 불러와 함께 살고 싶다, 나아가서 일본인남편이 양자 결연 하면 자동적으로 아이에게 재류 자격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혹은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라고 착각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양자 결연과 재류 자격 제도는 직접 관계하진 않습니다. 또, 일본인이 양친이 되어 결연 해도 외국적의 양자는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일본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귀화 수속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만 우선 그 전에 일본에 체재하기 위한 재류 자격을 취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가끔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에 있는 외국인과 그 일본인 배우자가 모국에 있는 외국인의 성인이 된 친자식을 불러와 양자 결연 해 함께 일본에서 살고 싶다」는 케이스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모국에서 불러와 아이가 「정주」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이가 17~18 세 정도까지가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된 아이를 불러와도 「정주자」의 재류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양자 결연 했다고 재류 자격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의 수속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 버립니다. 양자 결연을 생각하시는 분은 사전에 전문가에게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해설 · (행정서사) 마에다 미호

**자궁경부암예방 백신 접종이 무료!!**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HPV16 형과 18 형의 감염을 막는 예방 백신 접종이 2월 1일부터 조성(무료)되었습니다. 이 백신 접종이 자궁암의 모든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리스크를 줄이는데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대상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중학 1년~고교 1학년에 해당되는 연령의 여자.

접종 방법 첫회 접종 후 1개월 지나 2번째 접종하며 첫번째 접종한 후 6개월 후에 3번째 접종을 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것은 맥 근처의 야쿠쇼·야쿠바·보건센터 등에 문의해 주세요.

후지미시건강증진센터 049-253-3771

카미후쿠오카보건센터 049-264-8292

**「국제페스티벌」에 참가하지 않겠습니까?**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는 머지 않아 설립 15주년을 맞이합니다. 이것을 기념해 현마이칼 오오이사티 옆 공원에서 「국제페스티벌」을 5월 28일(토)에 개최합니다. 요즘 외국적시민의 참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센터의 운영 자금이 되는 바자용 물건도 모으고 있습니다. 모국의 물건 중에서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락해 주십시오. 받으러 가겠습니다.

☆연락처 ☎049-256-4290

**●기시카미 유카의**

**외국적시민의 눈·신기한 일본인의 풍습**

**◆일본의 슈퍼는 다국적?**

바로 요전날 집에서 카레라이스를 만들면서 언뜻 깨달았습니다.

뉴질랜드산의 양파에 오스트레일리아산의 고기, 미국산의 브로콜리에 브라질산의 호박, 캐나다산의 대두를 사용한 두부...

카레를 둘러싼 식품 재료의 반 정도가 외국산. 일상의 한 부분입니다만 재차 일본의 슈퍼에서 팔리고 있는 식품 재료 중에는 타국산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입니다. 일본의 식료자급율은 40%. 일본에 있는 음식 중 일본산이 반도 못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등 자급율이 100%를 넘는 나라가 있는 가운데 40%라고 하는 숫자는 높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 만들어진 식품 재료라면 음식을 옮기는 비용이나 거리가 적어도 됩니다. 보다 안심, 안전할 뿐만 아니라 식품 재료를 옮기는 차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적게 사용해도 되므로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품 재료를 자기나라에서 조달하는 편이 편리하며 예코, 그 지역에서 얻은 식품 재료를 그 지역에서 먹는 가능성과 고마움을 느낍니다.

**번역자 모집!!**  
모국어로 번역해 주시는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에서는 센터 독자적인 기획이나 행정과의 협동 등에서 다양한 정보를 각국어로 번역해 인쇄물 혹은 홈 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정보를 번역해 주시는 분이 모자랍니다. 타갈로그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한국어, 중국어 외에 일본어를 모국어로 번역해 PC 입력이 가능한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꼭 전화해 주세요. 기정의 요금으로 원고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049-256-4290 으로

**오오이일본어클래스 벤텐노모리살롱의 일본어 공부 「우레시노회관」에서 가능합니다,**

후지미노시 가까운 곳에는 많은 일본어 교실이 있습니다. 「오오이 일본어 클래스 벤텐노모리살롱」도 그 하나입니다.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교실이 제1과 제3 수요일에 센터가 있는 「우레시노회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둘다 10시부터 12시 반까지입니다. 매주 목요일에 행해지고 있는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의 일본어 교실과 맞추어 공부해 주세요. 「후지미노역」에서 조금 걷게 되었습니다만 걷는데 자신이 없는 분은 전화해 주세요. 역까지 마중가겠습니다.

**일본어교실 전화번호는 049-256-4290**

[www.ficcc.jp/foreign/](http://www.ficcc.jp/foreign/)

●새 사무소는 후지미노역에서 도보 20 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최종페이지를 봐 주세요